“밥 한 끼에도 감사함 담아”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 지도법사 지원 스님

남도사찰서는 벌써 매화가 지고,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면 완연한 봄날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철 음식이 가장 풍성하다는 봄날, 3월 25일 광주에 있는 자연사찰음식체험관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레스토랑’이 한창이었다.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은 증심사와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사찰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설립한 공간으로 이날은 어린이레스토링이 열린 이날은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한 지도법사 스님이 눈에 띄었다. 광주 주월동에 있는 연화사 주지 지원 스님<사진>이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식구들과 함께 멋진 외식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레스토랑은 꿈 많은 아이들이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원 스님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삶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현대 사회인들에게 불교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끝없이 고민을 하면서 광주지역 대표적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를 찾게 됐어요. 배우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때가 2015년 12월인데 이제 1년 반 정도 돼 가네요.”



지원 스님은 출가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고뇌’로 출가를 결심했다. 그리고 쉼 없이 정진했다. 출가 후 25년이 흘러 출가자의 삶이 세상과 등진 삶이 아니라 ‘속세와 함께 하는 현실적인 삶’임을 깨달았다. 이런 스님에게 어린이레스토랑은 힘든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다.

어린이레스토랑 준비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사 2~3일 전 봉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메뉴를 선정한다. 뜻있는 이들의 좋은 식재료 후원과 장보기를 마치면, 레스토랑 여는 날은 바빠진다. 오전 10시 가벼운 티타임과 봉사자들과의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음식준비에 들어간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은 모두 베테랑이다. 적게는 6개월, 많게는 4~5년차인 봉사자들은 손발이 잘 맞아 조화롭게 일을 나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시각장애인 가족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날이었다.

‘어린이 레스토랑’ 정기봉사
아이들에게 희망주기 위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요”

메뉴는 먹기 편한 엄마표 탕수육과 자장면이다. 매번 40~80여 명의 가족이 찾는 어린이레스토랑은 식사시간만 되면 왁자지껄하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어른들의 행복한 웃음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음식은 생명의 연장이자 가장 즐거운 만남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이곳에서 외식을 하듯 가족과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추억을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과 함께 만면에 웃음꽃을 피운 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장애인 가족들을 보내며 스님은 이곳에서의 하루가 좋은 추억으로 남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지원 스님은 광주 남구에 있는 연화사 주지로서 사찰서 운영하는 ‘아이온 유치원’ 원장이다.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이곳 어린이레스토랑에서 봉사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참여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는 듯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봉사한다기보다는 이곳에 와서 내 스스로 힘을 얻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스님 수행생활, 지역불교가 돕는다

빛고을나눔나무, 5월 중 승보공양 계획

경제형편 어려운 스님 대상
4월 사전방문 지원내역 협의
종단 무관, 속가 의탁 없어야
모연 통해 지속사업으로 확대

최근 불교계서 승려노후복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스님들을 위한 승보공양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3월 22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호남지역 출가수행자를 위한 승보공양’ 모연 프로그램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게재하고, 스님들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승보공양 홍보대사를 자처한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은 “호남지역의 열악한 불교환경과 더불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스님들이 큰 병환에 들거나 대중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곤궁한 삶을 살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 속가 식구들에게 의탁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며 “모연 동참과 함께 5월초에 승보공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빛고을나눔나무에 따르면 노스님 지원은 4월 사전방문을 통해 지원내역을 협의한 후 현물, 생활시설 보수 등으로 1회에 한정하지 않고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차 지원은 1000여만 원의 승보공양 기금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속가 가족에게 의탁하지 않는 독신 출가자를 우선으로 소속 종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도계 스님은 “청정한 출가 수행자란 평생 오로지 수행만을 위해 최소한의 소유만을 미덕으로 알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분을 말한다. 한국불교는 무소유의 가치를 으뜸으로 알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 하지만 소박하고 청빈한 삶으로 평생을 수행해 오신 일부 스님들의 노후는 많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고 모연 취지를 설명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전남지역 출가수행자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는 불교 전통을 살리고, 수행에 필요한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승보공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필품과 현물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의 끝자락을 올곧은 출가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스님들을 돕고자 홍보대사 도계 스님이 라디오방송 등서 모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올해 기금 1000만원과 3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모연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홍보방법에 있어 동영상과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 2014년 11월 창립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붓다의 선물’ 나눔경매, 2015년 네팔지진피해주민돕기 공동모금(광주지역 불교단체) 9600만원을 지진피해 지역 학교재건 등에 지원, 미얀마 홍수피해 주민돕기에 기금전달, 2015년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 실무자를 위한 ‘빛고을 모연(모금) 아카데미’ 개최, 2016년 네팔 룸비니지역 어린이를 위한 ‘행복자전거’ 100대(1000만원 상당) 전달 등 다양한 자비나눔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2014년부터 3년간 지역최초로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공모사업을 진행해 2014년 1500만원, 2015년 1300만원, 2016년 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750만원을 책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석전 스님 유지 이어 불교발전을”

고창 선운사, 3월 26일 석전 스님 69주기 추모

일제강점기 근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석전 영호당 정호대종사 69주기 추모재가 고창 선운사에서 봉행됐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3월 26일 정호대종사 69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조사전, 부도전에서 봉행했다.

상단 불공에 이어 분향, 사부대중 3배, 정호대종사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는 문중원로 재곤 스님, 재덕 · 법현 · 범여 스님을 비롯한 석전문도 스님들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 금강사 혜성 스님, 본말사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석전 스님 유지를 이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선운사의 발전을 위해 수행과 전법교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스님들이 부도전에서 역대 조사스님들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하는 모습.

이후에는 부도전에서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봉행됐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석전 스님은 율(律) · 화엄(華嚴) 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을)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교정(현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영도해왔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하고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부안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부안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3월 28일 기탁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나누미근농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지역의 대표 사찰로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내소사 신도회 임원들도 사업의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의사를 내비치며 “반값 등록금 실현에 모범적인 나누미근농장학금에 적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음 내주신 주지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은 연간 300여 명의 부안출신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부안의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3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3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7년 양력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수강료 별도)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8514-746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